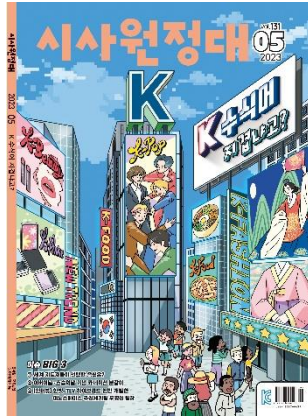


시사원정대 NIE 2023-5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주 수업 계획표

1주 수업 내용

2주 수업 계획표

2주 수업 내용

3주 수업 계획표

3주 수업 내용

4주 수업 계획표

4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2) 시사네컷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최신 이슈의 내용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알아봅니다.

주요 장면과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례를 현실감 있게 이해해 봅니다.

3)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친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5)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5월호 1주 (90분)		
학습 목표	초등학교 1, 2학년용 학폭법에서 제외할 때의 장단점을 생각해 본다. K-수식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를 탐구해 본다.		
활동 초점	- 1,2학년 초등생을 학폭법에서 제외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문제와 해법을 이야기해 본다. - K-수식어가 일종의 '프리미엄'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은 이유를 생각해 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 테스트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10
펼치기	-38~41 찬반배틀 1,2학년 초등생 학폭법에서 제외해도 될까?	- 학폭법 - 1,2학년 초등생을 학폭법에서 제외하는 것	45
	- 14~25 커버스토리 - 귀에서 발끝까지 퍼진 K바람 - K-수식어 만든 한국인 DNA - 마구잡이 K-수식어의 그늘	- K열풍의 사례와 배경 - K-수식어와 관련된 한국인의 특성 - K-수식어를 쓸 때 주의할 점	25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나의 장점이나 개성 중에서 K-수식어를 붙이고 싶은 면을 정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10

[2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5월호 1주		
학습 목표	K-수식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를 탐구해 본다.		
활동 초점	- K-수식어가 일종의 '프리미엄'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은 이유를 생각해 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 퀴즈로 어휘 테스트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3
펼치기	- 14~25 커버스토리 - 귀에서 발끝까지 퍼진 K바람 - K-수식어 만든 한국인 DNA - 마구잡이 K-수식어의 그늘	- K열풍의 사례와 배경 - K-수식어와 관련된 한국인의 특성 - K-수식어를 쓸 때 주의할 점	15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나의 장점이나 개성 중에서 K-수식어를 붙이고 싶은 면을 정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2

찬반배틀

1, 2학년 초등생, 학폭법에서 제외해도 될까?

<어휘 UP>

강도: 센 정도.

사회성: 사회생활을 하려는 인간의 근본 성질.

상습: 늘 하는 버릇.

현직: 현재의 직업.

뇌진탕: 머리를 부딪혀 발생하는 장애.

<발문>

- 1, 2학년 초등생을 학폭법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며, 이 주장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정리해 보자.
- 1, 2학년 초등생을 학폭법에서 제외한다면 해당 학년이 학교폭력을 일으켰을 때 어떤 교육적 지도가 필요할지 적어보자.

<교사 참고자료>

조희연, '초1~2학년 학폭위 처분 제외' 대정부 제안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등학교 1, 2학년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법 개정에 대한 내부 공론화를 거쳐 이르면 3월, 늦어도 1학기 안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은 초1부터 고3까지 모든 학년을 학폭위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 또

래들과의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 간의 다툼까지 법적 처분의 테두리 안에 넣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 1, 2학년 어린 아이들은 사회성을 배워나가는 단계인데, 부모님들의 갈등으로 인해 학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심각한 학폭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과도하게 법 적용을 해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청은 초 1, 2학년을 학폭위 처분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도교육감은 국회에 법안 발의권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협의 대정부 제안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협은 전국 17개 교육청에 공통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 교육부 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교육청은 이 전에 공론화 작업을 우선 거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과 법에 기대려는 입장이 갈릴 것 같아서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을 표집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예전 두발·교복 자율화처럼 찬성·반대 어떤 입장이 많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2023-01-16]

커버스토리

귀에서 발끝까지 퍼진 K바람

<어휘 UP>

수식어: 다른 언어표현의 의미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요소.

형성: 어떤 형상을 이룸.

복합어: 하나의 형태소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말.

한류: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

본거지: 활동의 근거로 삼는 곳.

플랫폼: 콘텐츠나 아이디어 교류가 이뤄지는 디지털 공간.

전자상거래: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파는 것.

수출: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에 팔.

상위: 높은 위치나 지위.

<발문>

1. K-팝, K-드라마처럼 K-수식어가 붙은 분야를 외국에 소개하는 짧은 기사를 써 보자.
2. K-수식어를 붙여서 새롭게 소개하고 싶은 물건이나 문화를 꼽고 이유와 함께 발표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돌아온 외국인관광객, 'K팝 성지' 쇼핑물-무비촬영지에 꽃이다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된 가운데 K팝 아이들의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대형쇼핑몰이나 뮤직비디오 촬영지 등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K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강북 구도심의 고궁 투어 중심이던 여행 코스 역시 K콘텐츠의 단골 배경이 되는 '힙지로', 성수동 일대 등으로 한층 넓어졌다.

최근 한국 관광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관광지로 여겨지지 않던 복합쇼핑몰의 부상이다. K팝 아이들의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K콘텐츠를 선보이며 'K팝 성지'로 입소문이 난 덕분이다. 더현대서울 등 대형쇼핑몰은 중요한 관광지로 급부상하며 외국인 대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더현대서울의 외국인 매출과 입장객 수가 각각 926%, 818% 증가했다.

더현대서울은 BTS레고(3월), 에스파(2월), 블랙핑크·뉴진스(지난해 8월) 등의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중국권, 동남아시아, 중동 등 현지 여행사의 서울 투어 코스에 더현대서울이 추가됐고, 다음 달에는 중국권 외국인 단체관광객 400여 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역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0% 증가했다.

K팝 체험과 미디어아트 관람을 동시에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하이커 그라운드'도 한국을 찾은 K팝 팬들에게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K팝 댄스 클래스 등을 수강하며 K컬처 본국인 한국의 다이내믹함과 에너지를 체험하는 관광객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K콘텐츠 관광을 원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여행업계도 K팝 아이돌 관련 명소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고 나섰다. 하나투어의 인바운드 전문 여행사 하나투어ITC는 지난해 BT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인 강원 평창, 경기 양주 일대 투어 상품을 내놨다. BTS의 리더 RM이 앉았던 고려대 앞 주점, 블랙핑크 단골 식당 등 스타들이 들른 곳을 여행 코스 정보로 제공하는 '스타트립'도 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경복궁 등 전통문화를 탐방하던 것에서 벗어나 K팝 명소를 여행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화두가 됐다"고 말했다.

관광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전 주춤했던 K콘텐츠 열풍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젊은층으로 확산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텍스프리(GTF)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월까지 더현대서울의 외국인 구매 고객 중 2030세대의 비중은 61.5%에 달했다. 2030 외국인들의 국내 방문이 늘면서 서울 강남과 성수동 카페 거리

등 K콘텐츠 연계 관광지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특히 SNS 등에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홍보 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콘텐츠가 급격하게 성장한 반면 이를 상품화해서 마케팅하는 것은 아직 초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K콘텐츠 개발이 활발한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2023-04-17]

커버스토리

K-수식어 만든 한국인 DNA

<어휘 UP>

강국: 국제 사회에서 그 세력을 인정하는 나라.

식민 지배: 다른 나라의 통치권을 지니고 그 나라를 다스림.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한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벌어진 전쟁. 이 전쟁으로 1953년 휴전선이 만들어졌으며 오늘날까지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강의 기적: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뤄낸 것을 두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경제 발전을 일컫는 '라인강의 강의 기적'에 빗대어 해외에서 부르는 표현.

금모으기 운동: 1997년 외환 위기가 벌어졌을 때 한국은행의 금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각자의金を 모은 운동.

<발문>

1. 한국인의 DNA가 녹아 있는 장면 중 하나를 꼽아 한국인의 특성을 소개하는 웹툰으로 그려보자.
2. 한국인의 특성을 표현하는 단어를 3가지 꼽고 이유와 함께 소개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신동립 잡기노트]한국인, 참 잘났다...문화DNA

역동, 끈기, 예의, 해학, 곰삭음, 흥(신명), 어울림, 정(나눔), 자연스러움, 우리(공동체)

'2012년에 주목할 10대 한국문화유전자'다. 여론조사로 골라낸 것들이다. 문화유전자는 사회에 내재한 문화코드 가운데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개성을 담고 일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성질이다. 고정 불변은 아니다.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

한다. 특정되지 않은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코드다. 시간적 흐름, 공간적 범위, 개별문화 영역을 넘어 문화 전반에 깃든 한국문화의 근간이 바로 한국문화유전자다.

역동. 강병호 배재대 한류문화산업대학원장은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한국문화의 역동성을 현대한국을 일군 중요한 문화유전자로 지목한다. 경제적 고도성장과 한류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고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1960년대 이후 성취의지와 안보불안감의 환경적 요인이 오늘날 널리 퍼진 빨리빨리의 문화를 빚어내는 데 일조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전통시대의 느낌과 여유가 요청되고 있다"고 짚는다.

끈기. 급변하는 환경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한민족의 정신적 뿌리다. 전경일 인문경영연구소장은 "자칫 감성적인 고집으로 비취질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한국인의 지속성을 밑받침해온 정신적 뿌리"라고 강조한다. 세종대왕, 이순신, 문익점, 조엄 등에게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인의 문화적 역량을 본다.

예의. 많이 퇴색했지만 국제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덕목이다. 이만열 경희대 교수에게는 예의의 화신인 선비정신은 공동체를 책임지는 바람직한 엘리트의식이다. 현대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일 뿐더러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동방예의지국'의 문화적 가치는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학. TV 개그프로그램에는 단순한 익살이 아니라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여유롭되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지혜가 담겨있다. 신광철 한신대 교수는 해학은 단순 웃음이 아니라 품위있는 익살과 풍자의 조합이며 삶에 대한 관조와 여유의 미학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따스하고 넉넉한 품성과 문화적 재치를 잘 드러내는 문화유전자로 주목한다.

곰삭음. 한식은 세계인들이 찾는 매력적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주영하 한국

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오랜 시간 발효를 통해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쳐 진정한 맛에 이르는 익음과 곰삭음은 “가족과 이웃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기다림의 미학을 품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국음식을 대표하는 발효음식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맛의 다채로움과 발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과 인간의 매개물”임을 인식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맛의 문화유전자가 지닌 특성을 재음미하라고 주문한다.

흥(신명) 사이의 '강남스타일'은 한국인의 흥과 신명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의 신명난 노래와 몸짓에 세계가 흥겨워하고 있다. 이상민 가톨릭대 교수는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K팝에서 잘 발현되는 흥이 “삶을 신명나게 풀어내는 놀이, 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문화가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보편적 감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역설한다.

어울림. 다문화시대를 맞아 함께 사는 지혜가 요청되는 시기에 사회가 재음미해 볼 만한 문화유전자다. 최재목 영남대 교수는 “비빔밥처럼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것들이 한 데 모여 한판, 한마당이 되는 것”이라며 오지랖에서 조각보에 이르기까지 어울림과 연관된 한국인의 문화적 현상을 흥익인간, 접화군생, 십문화쟁사상, 풍류의 정신으로 연결한다. “한민족의 오랜 미학적 윤리”이며 다문화시대에 새롭게 되새겨야 할 한국문화유전자라는 판단이다.

정(나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문화의 속내를 살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다. 한국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코드이기도 하다. 송원찬 한양대 교수는 “배려와 나눔이라는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문화 코드”라고 특기한다.

자연스러움. 인위적 손길로 화려한 장식을 가하거나 잘 짜여진 기하학적 구도를 잡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한국문화의 핵심이다.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자연스러움의 개념적 연원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한편, “자연스러움이 전체를 의식하고 타자를 배려하는 태도, 수줍고 겸양하는 인품을 찬양하는 태도로 이어진다”고 파악한다.

우리(공동체) 가족과 효로 대표되는 것이 한국인의 우리의식, 공동체의식이다. 김기덕 건국대 교수는 “중국 대륙이 한국 드라마에서 가족과 효를 발견한 것이 한류문화의 시발이 됐는데,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모듬살이의 경험이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풀이한다.

[뉴시스 2012-10-07]

커버스토리

마구잡이 K-수식어의 그늘

<어휘 UP>

위상: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혹독한: 몹시 심한.

육성: 길러 자라게 함.

불공정: 공평하고 올바르지 아니함.

<발문>

1. K-수식어를 붙이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2. K-수식어가 '프리미엄'이라는 지금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3가지 적어보자.

<교사 참고자료>

한기정 "K-콘텐츠 불공정 계약 막는다...관행 전반 점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1일 "K-콘텐츠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작권 제공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시장의 경쟁 구조와 불공정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혁신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원 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며 저작권 분쟁을 이어가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출판사

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이 독점력을 남용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 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열정과 창의를 가진 스타트업이 서비스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 받는 공정한 거래 기반을 만드는 데 공정위가 힘을 보탤 것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용역 하도급 분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분야 등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초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배달앱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오픈마켓·숙박앱 등 주요 업종으로 자율규제 논의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과 관련해 "편법적인 지배력 승계나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잠식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되,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대기업집단 지정·공시제도 등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하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거래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마케팅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비자 피해의 양태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인터페이스 설계·조작을 통해 교묘하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의 날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주관단체 관계자·공정거래 유공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동아일보 2023-03-31]